

주일 예배 2024년 5월 12일

오전 8시: 드림워십 인도: 이재철 목사
오전 10시: 글로리아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오후 12시: 블레임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Dynamis Praise
* 기원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 성서고독 Responsive Reading	제98편 (아비아주일)	다같이 Together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Together
* 찬송 Hymn	새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After God's will, for His purpose'	다같이 Together
* 기도 Prayer	김성신 장로 Elder SunShin Kim
* 성경봉독 Scripture	(1.2부) 출애굽기20:12 / (3부) 마태복음 5:17-32	인도자 Presider 'Exodus 20:12' 'Matthew 5:17-32'
* 불린 Offering	새213장(송348) '나의 생명을 드려나!' (1.4부)	다같이 Together 'Take My Life, and let it be'
* 찬양 Anthem	'어머니의 사랑'	글로리아 찬양대 Gloria Choir
* 설교 Preaching	(1.2부) "갈되는 삶의 비결" (3부) "기쁨수없는 법"	김학진 목사 김성준 목사
* 찬송 Hymn	새304장(송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같이 Together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Rev. Hak Jin Kim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기뻐한 웃음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시편 29:2

(* 표는 가능하면 읽어남 / Stand if able)

교회소식

1. 오는 주일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아비아 주일 및 축도 잔치
제3신교회 주축로 오늘(5/12) 글로리아 워십 후 잔치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축도 잔치를 베풀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교회 밴드 운영은 축도 잔치 후에 출발합니다.
* 오늘(5/12)행복한 시니어 목장 리더 모임은 축도 잔치 관계로 원합니다.
3. 선교위원회 바치회 기념,
바치회 센터 후원 선교바치회 기념이 추가 행사에 되어 최종 \$14,299,000 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22회 보화 캐기.

제22회 보화 캐기에 70% 이상 참여하신 분이 45명입니다.
소정의 선물이 모국위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기 바랍니다.

** 2023 - 24년 제22회 보화 캐기에 70% 이상 참여자 명단 **

김덕자 김동열 김민화 김민희 김미숙 김민희 김순혜 김연희 김영희 김은희
김유덕 김정열 김현숙 김현은 김희중 김희숙 노삼선 류현일 민숙희 박경순 박경득
박영규 박향 박소정 신순자 신영자 신영자 심인숙 양숙현 양철원 윤신애 이윤순 이해성
장도화 정규분 정준화 정혜숙 조만자 조문순 조희희 최보경 최원범 하정자 홍숙자.

** 제23회 보화 캐기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5. 생명의 삶 5월호.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6. 하루를 여는 묵상(O.T)말씀
월 열왕기상 16:15-28 회 열왕기상 16:29-34 수 열왕기상 17:1-16
목 열왕기상 17:17-24 금 열왕기상 18:1-15 토 열왕기상 18:16-29

금주의 영육과 훈련

공동체 성경암기(토요). 사도행전7-12장 오전가사-가사45분 장소: 새가족실
남재기(주일). 제 3권 9과/ 그리스인의 주재권 10과/ 창지기 격

기관소식

교우일 제1, 2선교회 주관으로 5월 19일(주일) 에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에게 감사의 사리가 마련됩니다. 오후 1시 30분 선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제5신교회. 성극(다나엘)관람을 위해 5월23일(목)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교회에서
버스타기(오전 6:40) 출발합니다. 문의: 김명준(917)523-8668

재단위원회. 교회 주자장 주변 및 화단에 재단위원회 허락없이 일체의 모종이나 새앗을
뿌리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교동부. 버스(밴) 운전 봉사자를 찾습니다.

문의: 방영복 장로 (646) 236-2554 교회사무실(718) 706-0100

교우소식

출구. 천대인

출타. 최향식/백진화

병고. 김희숙A, 박혜숙A, 박혜숙, 서매자, 신명희, 오은숙, 이명숙, 영아희중, 로사우

지난주 설교요약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라"

본문: 출애굽기20:1-6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신인 교도도 그렇고 헬렌으로
말건 우리 모두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5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참으로 귀하게
어기십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을 믿어서고 부모신 이 믿어서 하나님의 귀하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와 같이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가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지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을 통해 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시내 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신명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하한 목적과 축복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의 마음으로 신명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그다음 세대
를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기며 순종하는 그 모든 세대를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세대가 그다음 세대인 2세대와 그다음
세대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실 것 보다 주시는 분에 더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뛰어넘는 본질적
개입 인 것입니다. 애수감에서 탈출하신 것과 같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세대 된 우리 부모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자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축복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길 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가 갖는 가정 기증 이쁜 현실은 다음 세대가 80퍼센트 이상 한인교회를 떠나간
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나는다는 현실입니다.
신앙의 소멸, 문화와 세대적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1세대의 진심어린 사랑과 축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사랑과 기도가 있는 한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약속으로 믿는 축복이 아닌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그다음 세대를

실연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
는 우리 누경의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 1세대가 더우더 이런 희생과 헌신적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기도함으로써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역사가 써 내려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